

기획조사05-056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2005. 12

KOTRA

목 차

I. 세계경제 추세 및 전망	1
1. 세계경제 변화의 특징	1
가. 글로벌리즘의 보편화	1
나. 지역주의의 확산	2
다. 중국경제의 부상	3
2. 세계경제전망	4
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4
나. 세계교역규모의 증가	5
다. 위안화절상과 세계경제	6
II.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7
1.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일경제	7
가. 세계 3대경제권으로 부상	8
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9
2. 한중일 3국간 교역동향	10
가. 한중일 교역현황	10
나.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징	12
3. 한중일 투자동향	16
가. 한중일 투자 현황	16
나. 한중일 3국간 투자특징	19
4. 한중일 3국의 주요산업비교	22
III.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	25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25
2.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	26
3.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30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32

I. 세계경제 추세 및 전망

1. 세계 경제변화의 특징

-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화와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속에 글로벌리즘(Globalization)의 보편화,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 중국의 부상등 20세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가. 글로벌리즘(Globalization)의 보편화

-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와 일체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사이클의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짐
 - 상품이외에 자본, 인력등 생산요소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교역이 급격히 증가
 - 세계적인 무역량의 급증과 경제의 상호의존성 확대로 한 나라의 경기변화가 다른 나라에도 신속히 파급됨
- 기업은 기술혁신, 다국적화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 공정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최적 생산, 조달체제를 구축
 - 해외투자, M&A 및 경영자원의 글로벌 아웃소싱등으로 세계 FDI는 2,020억불(1990)→1조3,930억불(2000)로 10년간 연평균 20.2%증가했고, 치열한 가격경쟁과 부품 범용화에 따라, 글로벌 소싱의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불에 이르고 있음

나. 지역주의의 확산

- WTO의 다자주의와 더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등 지역블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WTO 체제하에서 지역경제통합이 강화되는 요인은 ①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 ② WTO의 다자주의 결함의 보완 ③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의 적극적인 참여
- WTO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발효 중인 FTA는 '05.1월 기준으로 162건임
 - EU는 '04. 5월 동구권 10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25개 회원국
 -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으로, 미주대륙을 아우르는 34개 회원국의 거대경제블럭이 탄생
 - 한편, FTA에 소극적이었던 한국, 일본, 중국등 동북아 국가들도 FTA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주요 국가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2004)>

EFTA	칠레	멕시코	EU	싱가폴	미국	태국
42개국	41	42	35	18	17	15

주 : 중국(2개국), 일본(3개국), 한국(2개국)

- 세계적인 FTA 체결추세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으로서 불이익이 커질 전망
 - 2003년기준, 주요 지역무역협정(EU, NAFTA, MERCOSUR, ASEAN)의 역내 수출총액은 세계 전체수출의 35.6%를 차지
 - FTA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서비스분야 등도 포함되는 추세로 FTA 미체결국에게는 직접적 불이익 초래

다. 중국경제의 부상

- 1978년 개혁·개방후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후, 연평균 7%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성장
- 2004년 GDP는 1조 6천억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며 교역 규모는 1조 1,546억달러로 미국,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
-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시멘트, 비료, 화학섬유등 주요제품에서 세계 1위의 생산력과시

<중국의 GDP 성장률>

(단위 : %)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 국	7.5	8.3	9.3	9.5	8.5	8.0
브라질	1.3	1.9	0.5	5.2	3.7	3.5
러시아	5.1	4.7	7.3	7.1	6.0	5.5
인 도	4.8	4.4	7.5	7.3	6.7	6.4

자료 : IMF(2005, 2006년은 전망치)

- 2,040년 이후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2030년에는 Brics의 경제규모가 서방선진국 G6를 능가할 것이며, 2040년를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전망

<중국의 GDP추이와 전망>

(단위 : 10억달러)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BRICS	2,700	5441	12,248	24,415	47,013	84,201
중국	1,078	2,998	7,070	14,312	26,439	44,453
G6	19,702	24,919	29,928	35,927	44,072	54,433
미국	9,825	13,271	16,415	20,833	27,229	35,165

자료 : 골드만 삭스

2. 세계경제 전망

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 세계경제는 2003년 4.0% 성장에 이어 2004년 5.1%의 고성장 기록. 이는 1976년 5.1%성장을 기록한 이후 최고 성장률

- 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요인은
 - 각국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수행
 - 기업 이윤의 증가
 - 주식,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 중국 및 미국의 경기 활성화 등임

□ 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3%로 둔화될 전망이나 최근 10년간 평균성장률 3.8%에 비해 높은 수준

<주요 국별 경제전망>

(단위 : %)

	전세계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2004	5.1	4.4	2.5	2.6	9.5	7.3	5.2	7.1
2005	4.3	3.6	2.1	0.8	8.5	6.7	3.7	6.0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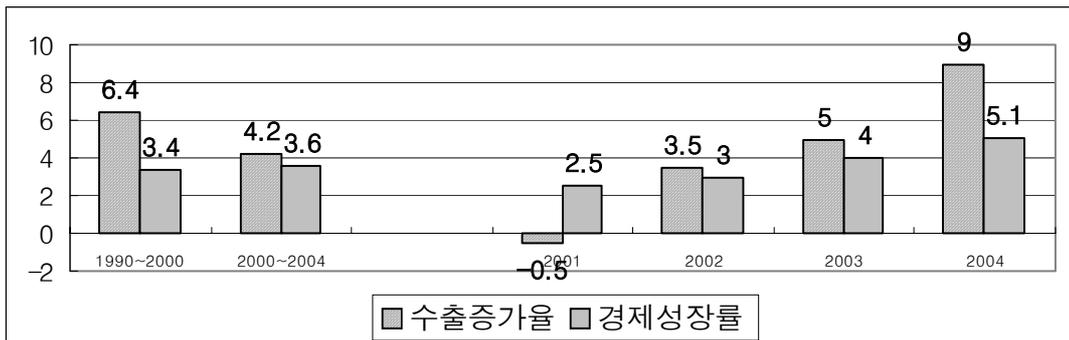
- 꾸준한 내수회복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 투자유치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
-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유망시장들도 세계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

나. 세계 교역규모의 증가

- 2004년 세계 교역규모는 수출 8조 8,800억불, 수입9조 2,150억불로 총 18조 950억불에 달함
- 2004년도 세계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9%의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5.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음.
- 2004년도 세계 수출증가의 원인은
 -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및 수입가 상승
 - 중국 등 신흥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전 세계 수입규모도 2조137억불('84) → 4조4261억불('94) → 9조2150억불('04)로 10년 마다 2배씩 증가

<세계 수출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WTO, IMF

- 2005년 교역증가율은 7.4%로 2004년 9.9%에 비해 다소 둔화 전망이나 최근 10년간 평균 교역 증가율 6.8%보다는 높은 수준의 성장예상

다. 위안화 절상과 세계 경제

- 지난 7월 21일 달러당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평가절상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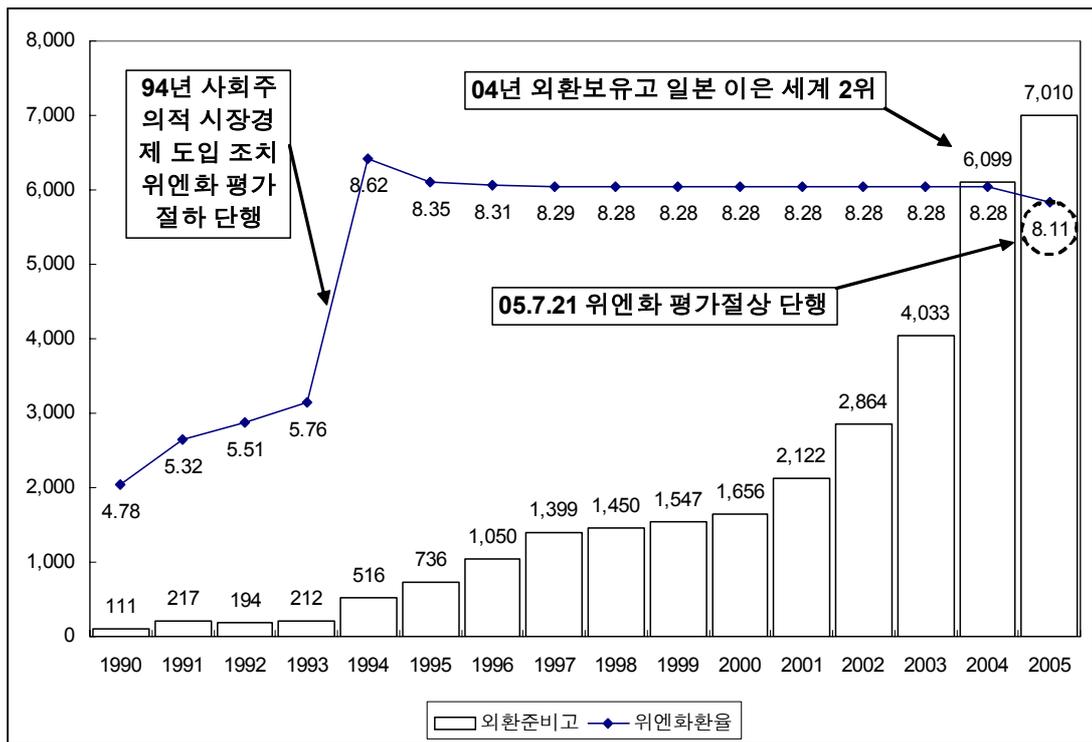
변경 전	⇒	변경 후
고정환율제 (1달러: 8.28 위안) (상하변동폭 0.3%)	2.1% 절상	관리변동환율제 (1달러 : 8.11위안) (상하변동폭 0.3%)
對미 달러에 페그		복수통화 바스켓 밴드에 연동예정 (바스켓 구성 통화 및 가중치 미발표)

- 금년 상반기 무역흑자 수지 396억달러, 외환보유고 7,110억달러(6월말 기준), 2분기 9.5%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경기 과열양상등은 고정환율제도 유지를 어렵게 함
- 미국과 EU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하 등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섬유험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일부제품의 대미 섬유수출 중단이라는 막다른 곳에 몰림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오던 평가절상 카드를 제시
- 소폭의 평가절상에 그쳐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내수부양 조치를 통한 소비진작으로 수출감소를 대신하여 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
 - 對미, EU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겠으나 대립구도로 이어지던 통상분쟁을 누그러뜨릴 것임

- 중국의 위엔화절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율 메커니즘 개혁”으로 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금융 개혁을 통한 시장 경제로의 편입을 꾀할 것임
- 향후 1-2년내 5-10%추가 절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정부는 국내경기와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해 추가 절상여부를 결정할 전망

<표7 중국 위엔화 환율변화 / 외환보유고 추이 >

(단위 : : US \$ 억불 / 1 \$ 당 元화)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4, 2005년 수치는 상무부 발표자료 6월까지

II.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1. 중국의 고도 성장과 한일 경제

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

- EU, NAFTA의 양대 경제권으로 주도되던 세계경제가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3대 성장축(Growth pole)을 구성
 - EU는 2002년초부터 유로화 통용에 의한 관세화폐연맹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2004년 5월 10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국수가 25개국으로 확대
 - NAFTA는 2005년중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이 포함되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
 - 중국의 고도성장과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일본경제의 회복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력을 크게 신장시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경제적 위상이 급부상

<세계 경제 3대권 비교>

(2004년기준)

	EU	NAFTA	동북아경제권
인구(백만)	454	428	1,476
면적(천km ²)	4,315	20,216	10,038
GDP(십억불)	12,481	19,279	6,945
교역액(십억불)	7,492	2,971	2,654
회원국	25	미, 캐, 멕	한, 중, 일
경제통합	경제연맹	FTA	-

자료 : WTO, IMF

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동북아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으로 지난 20-30년간 고속성장에 힘입어 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20% 내외를 담당
-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2배이상 상회함

<동북아 3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평균	세계평균
1970-1979	8.8	5.6	4.6	7.6	3.9
1980-1989	9.0	10.0	3.9	7.6	3.0
1990-2000	5.2	10.0	1.0	5.0	2.3

자료 : IMF

- 일본경제의 상대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동북아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
- '04년 교역규모는 한국 4,783억달러, 일본 10,219억달러, 중국 11,546억등 총 26,548억달러로 전세계 교역액의 14.9%를 차지

<동북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구분	1997	2001	2005	2006-2020
한국	1.6	1.7	1.9	2.1
중국	3.0	3.6	4.3	6.0
일본	14.5	13.1	12.2	11.0
동북아	19.1	18.4	18.4	19.1

자료: S&P, World Economic Outlook

2. 한·중·일 3국간 교역동향

가. 한중일 교역현황

- 한, 중, 일 교역 패턴은 2004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대해 24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한국은 중국에 202억을, 중국은 일본에 대해 244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
- 2000년 대비, 5년동안 한중교역규모는 2.4배, 일중교역은 1.97배, 한일교역은 1.29배 증가함

<한중일 교역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한중교역		한일교역		일중교역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교역액	314.1	739.4	522.9	678.4	854.1	1,684.1
무역수지	58.1	201.8	113.6	244.4	247.6	204.7
흑자국	한국		일본		중국	

자료 : KOTIS, WTA

- 한,중,일 3국의 상호교역은 4위 이내의 수출입 상대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어 경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

<2004년 기준 각국별 수출국 및 수입국 순위>

구분	한국의 교역		중국의 교역		일본의 교역		미국의 교역	
	수출국 순위	수입국 순위						
한국	-	-	4	3	3	3	7	7
중국	1	2	-	-	2	1	5	2
일본	3	1	3	1	-	-	3	4
미국	2	3	1	4	1	2	-	-

자료: KOTIS, W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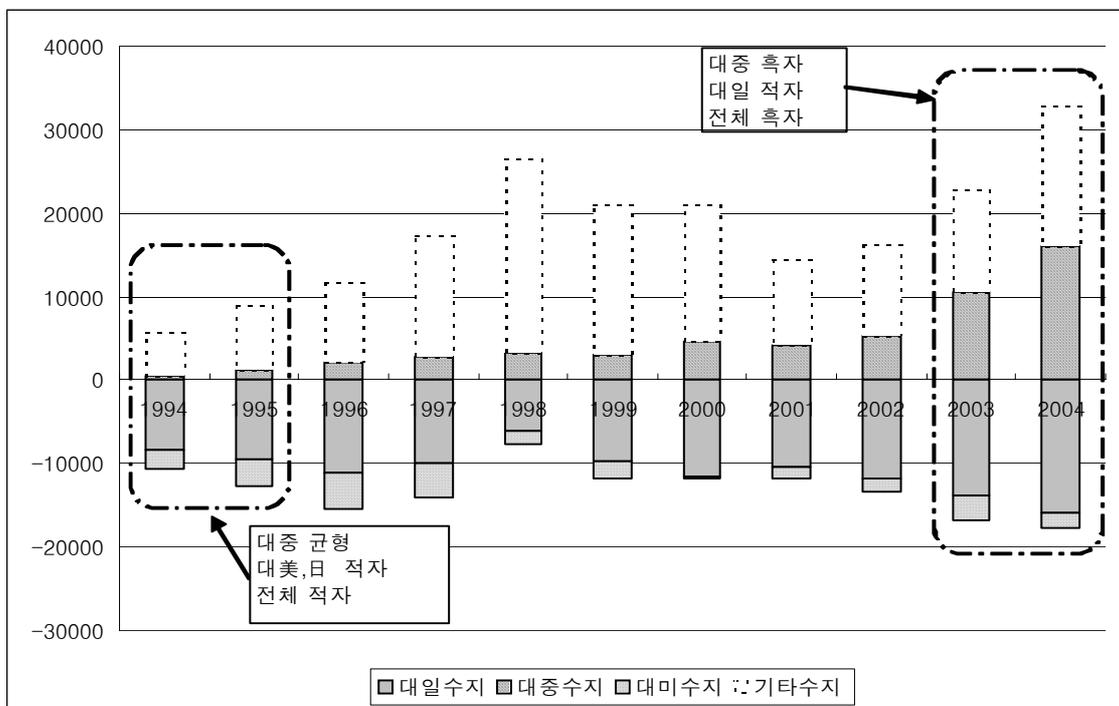
□ 한중일 3국의 교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된 데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중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함

○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등장하면서 한·일 양국 모두 대중 수출비중이 매년 증가함. 97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10%에서 04년에는 19.6%로 일본의 대중수출 비중은 4.1%에서 12.0%로 증가함

○ 특히 대중 투자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현지생산에 따른 부품등 중간재 수출의 증가로 대중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90년대에는 부품소재분야에서 대일 적자폭이 커서,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적자였으나, 2000년 이후, 중국으로 부품소재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일 부품소재 적자폭이 상쇄되는 양상을 보임

<94~2004 한국 부품소재산업 대세계 수지현황 >



자료 : 산업자원부-기계산업진흥회 부품산업통계

- 한편, 한·중·일 3국의 수출상대국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주요한 위치를 차지(대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15~30%대)
 -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모두 수출지향형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역할
 - 2004년에 와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대중수출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는 경향

<한,중,일,미국의 상호수출 비중>

(단위 : %)

구분	연도	한국비중	중국비중	일본비중	미국비중
한국의 수출	1997	-	10.0	10.9	15.9
	2000	-	10.7	11.9	21.8
	2004	-	19.6	8.6	16.9
중국의 수출	1997	5.1	-	18.4	16.9
	2000	4.5	-	16.2	20.5
	2004	4.8	-	13.4	21.0
일본의 수출	1997	6.7	4.1	-	29.2
	2000	6.3	4.9	-	30.2
	2004	8.9	12.0	-	22.9
미국의 수출	1997	3.9	1.9	10.2	-
	2000	3.5	1.5	8.3	-
	2004	3.1	4.4	6.7	-

자료 : W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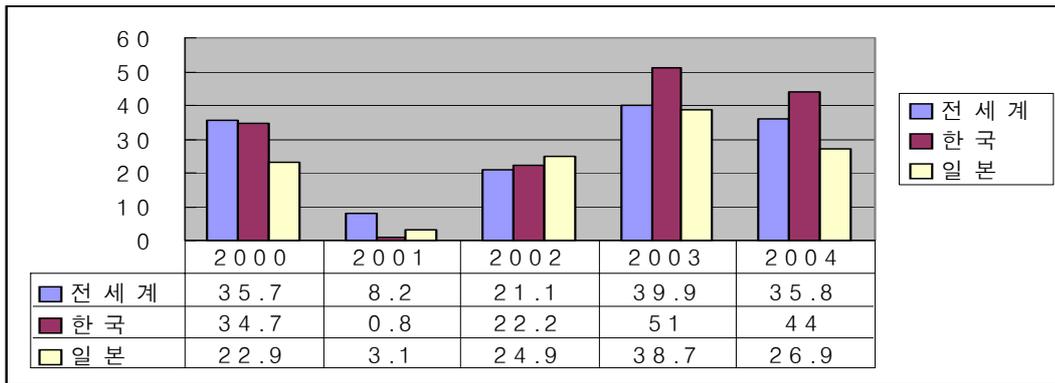
나.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징

-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삼각무역체제를 형성
 -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원자재, 자본재를 수출
 - 중국은 한국에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출
 -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자본재, 원자재 수출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섬유, 농산물 및 내구재등 최종소비재를 수입

□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

-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생산네트웍을 형성함에 따라 기계 및 전자, 석유화학, 플라스틱, 1차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중국의 수입증가율 동향>



자료 : WTA

□ 산업 통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간·산업내 무역에서 3국간의 무역은 대부분 산업간 무역이며 산업내 무역의 경우엔 수평적 무역보다 수직적 분업관계가 일반적임

[참고]

산업간 무역 :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에서 1차산물과 2차산물이 거래되는 것이 대표적 예, 산업간 무역이 많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뜻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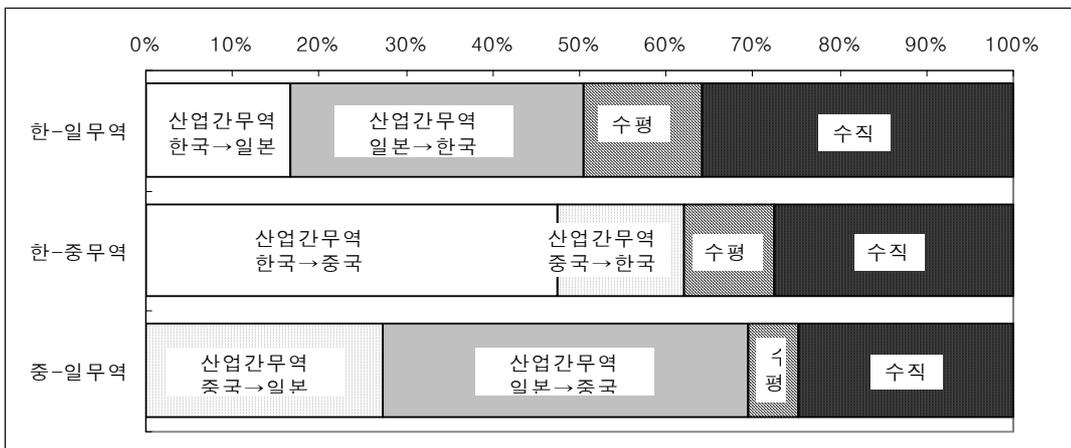
산업내 무역 :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최종재의 단계에 따른 동일한 산업 내에서의 무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줌, 수평적 산업내 무역은 차별화/품질 유사한 무역,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한가지 산업내에서 품질 차이가 있는 무역임

- 산업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일간에는 50.2%, 한.중간에는 61.9%, 중.일간에는 68.8%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2배이상 산업간 품목의 수입이 많고, 산업내 무역에서 수직 분업 비율이 높아 일본에 대해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플라스틱, 1차 금속, 기계 및 전기제품 등에서 일본과 산업내 무역이 많음

- 그러나 대중국과는 산업간 수출 품목이 많으며 신발,모자류, 석재/시멘트유리, 기계전기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여 경제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중국과 전형적인 산업간무역이 활발하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 41.6%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산업내 무역에서는 수직적 무역이 많아 공정화·분업화가 착실히 진행되어 있음을 보임

<한중일 산업간/산업내 무역비중>



자료 : KIEP

- 한편, 한중일 3국간에는 과거에 비해, 경합관계가 증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완성도 크게 증가
-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유사한 수출·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의 교역구조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
- 최근에는 한·중간의 수출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수출구조가 한국과 일본에 유사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

<한중일 현시비교우위 지수>

산업	한국		중국		일본	
	95	02	95	02	95	02
섬유, 의류	2.22	1.66	3.90	3.27	0.27	0.27
석유관련제품	0.74	1.22	1.29	0.71	0.22	0.10
비금속광물	0.27	0.29	1.19	1.03	0.63	0.58
제 1차금속	1.40	1.59	1.16	0.46	1.31	1.69
일반기계	0.48	0.61	0.46	0.46	1.54	1.39
전기기계	0.89	0.79	2.35	2.35	1.15	0.79
전자	1.95	1.96	0.82	1.58	1.83	1.39
운송장비	1.01	1.22	0.16	0.16	1.54	1.67
정밀기기	0.39	0.30	0.64	0.64	1.63	1.65

주: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각국의 수출비교우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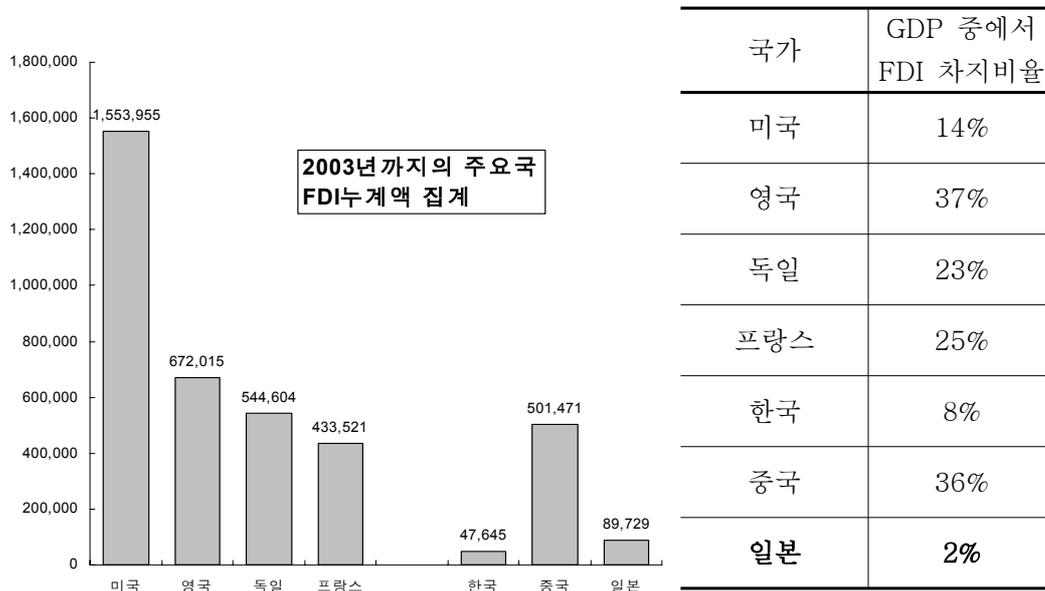
- 한국은 전자산업, 운송장비등 조립가공산업은 수출산업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원부자재와 기계, 설비, 정밀산업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수입에 의존
- 중국은 섬유, 의류, 전기기계, 전자제품이 수출에,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수입에 특화되어 있어 한·중 양국간 보완관계를 형성
- 일본은 일반기계, 정밀기기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 섬유의류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비교열위임. 한국과는 1차금속(철강등),전자,운송(자동차,조선)에서 경합관계이며 일반기계, 정밀기기등에서는 보완관계임. 중국과는 전자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강한 보완관계를 나타냄
- 한·중·일 3국간에는 경합관계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합관계의 이면에는 산업내 무역을 통해서 상대국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보완성 역시 크게 증가되고 있음
-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는 경쟁과 협조 가능성은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증대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3. 한중일 투자동향

가. 한중일 투자 현황

- 한중일 삼국은 상호 FDI 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으로, FDI 유치의 잠재력도 높아 동북아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살펴볼 때에,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열 볼수 있음

<주요국 FDI 누적액 / GDP 대비 FDI 비율>



주 : US \$ 100만불 / 2003년 기준임

자료 : UNCTAD FDI 통계

○ 한중일 3국 상호간의 FDI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한국 : IMF사태 이후, 제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중국으로 빠르게 진출중이며, 대일진출은 미약
- 중국 : 해외투자(저우추취(走出去))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 대일 투자는 미약함
- 일본 : 90년대 이후 대중투자가 큰 테마가 되고 있으며, 대중투자는 대한투자와 경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

□ 한중일 3국의 전체 투자 유입액은 2000년도 이후 중국/일본/한국 순이나 3국간의 투자액은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세계 투자에서보다 3국간 투자가 제조업에 비중이 높고 인건비와 물가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3국간의 심리적 거리감, 역사문제, 지정학적 위험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2000년 이후 한중일 상호투자유치액 비교>

(단위 :백만달러, %)

국가	2000~2004 투자액	2000~2004 누계액	2000~2004년 유치국,투자비중
중국 전체 투자유입액	53,781	254,498	100
일본 전체 투자유입액	37,459	119,797	100
한국 전체 투자유입액	12,785	54,854	100
한국 → 중국	6,200	17,051	6.7
일본 → 중국	5,500	22,007	8.6
일본 → 한국	2,257	7,426	13.5
중국 → 한국	1,164	1,611	2.9
한국 → 일본	229	360	0.3
중국 → 일본	9	22	0.02

주 : 투자유입국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투자진출국의 통계와는 다름
 자료 : 산업자원부,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상무부 통계, JETRO 통계 등

□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에서의 비중을 보면

- 2000년 이후 대중국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6.7%, 8.6%의 점유율을 점하면서 의미있는 투자국으로 부상
- 한국에서 일본은 2000년 이후 전체 13.5%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한 유치 대상국가이나 중국의 대한투자는 아직은 미미함
- 일본에서 한국(0.3%), 중국(0.02%) 모두 투자의 절대적인 투자액과 비중이 극히 낮음

□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각국의 비중을 살펴 보면

- 한국은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이 투자신고기준 45.8%로 최대 투자 상대국이나, 대일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 중국의 경우 대한투자는 03년까지 누계 7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투자액 비율은 10%정도이나, 대일투자는 극히 저조함
- 일본의 경우 대중투자는 대동남아시아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니며 꾸준히 증가함.(2004년에는 12.8%로 급증, 대미투자 13.1%에 육박), 대한투자는 90년대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증감양상을 보임(2004년도 2.3%)

<1995-2003년 한중일 투자대상국 상대비율>

	대한국	대중국	대일본
한국	-	19.7%	1.7%
중국	8.7%	-	0.7%
일본	1.2%	4.4%	-

자료 : KIEP

나. 한중일 3국간 투자 특징

- 2004년에 가장 특이할 점은 최초로 대중투자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다는 점임
- 이는 2005년도 상반기의 대중투자유치 실적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최근에 와서도 일본을 추월하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건당 투자액에 있어서 297백만달러로 전체평균 406백만불, 미국 359백만불, 일본 320백만불에 비해 투자의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재투자 비율이 높음

<2005년도 상반기 국가별 중국 FDI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계약건수	신장율	신고금액	신장율	실행금액	신장율
	전체	21,212	- 1.8	8,619	19.0	2,856	- 3.2
1	홍콩	6,958	- 2.6	2,779	18.1	805	- 14.8
2	버진군도	1,150	- 14.0	970	- 1.8	437	38.6
3	한국	3,327	23.0	989	73.5	278	- 4.8
4	일본	1,620	- 8.2	519	0.4	327	20.4
5	미국	1,808	- 10.0	650	11.6	146	28.9
6	대만	1,840	- 9.8	477	3.8	118	- 22.3

자료 : 중국 상무부

- 전 세계에서 투자유치 분야는, 한국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서비스업)의 투자유입이 비슷하나 중국은 제조업에서 일본은 서비스업의 유입추세가 두드러짐

< 세계 대비 한중일 FDI 투자중 제조업 비중 >

(단위 : 백만달러,%)

	산업	1998~2000	2001~2003	합계
선진국	전산업	-	-	5,068,000
	제조업	-	-	1,602,000
	제조업비중	-	-	31.6
개도국	전산업	-	-	2,303,000
	제조업	-	-	840,000
	제조업비중	-	-	36.4
한국	전산업	39,612	26,861	66,473
	제조업	21,034	6,944	27,978
	제조업비중	53.1	25.9	42.1
중국	전산업	155,705	151,963	307,668
	제조업	69,586	108,117	177,703
	비중	44.7	71.7	57.8
일본	전산업	60,327	53,644	113,971
	제조업	18,335	13,474	31,809
	비중	30.4	25.1	27.9

주 : 선진국과 개도국 수치는 2002년도 1년간의 수치임 (UNCTAD)

자료 : 각국통계 KIEP, UNCTAD 등

□ 한·중·일 3국간 투자에서 보면

- 한국의 경우, 대중투자진출의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큼. 한 편 대일투자진출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 : 서비스산업 중 IT, 문화콘텐츠 부분등의 진출이 두드러짐. NHN 한게임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 진출하여 ID 등록자 600만명, 04년말 게임사이트 부문 1위, 블로그서비스랭킹 3위등을 차지하는 등 활발히 진출중임

-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한·대일 진출 초기단계로 고도기술업체 M&A가 중심이며, 앞으로 큰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예 : 02년의 중국 BOE에 의한 하이디스 인수(LCD부문) 1.5억불, 04년 상해기차에 의한 쌍용자동차 인수 5.6억불, 상하이성다에 의한 액토즈 소프트사 인수(온라인게임) 1.3억불 등은 대외투자산업지도등에 의한 진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함

- 일본의 경우 대중투자는 제조업(자동차, 철강등) 중심이나, 대한투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예 : 대중투자를 주도하는 자동차메이커 토요타, 닛산, 혼다가 모두 진출하여 있으며, JFE철강등 대중진출이 활발함, 대한진출의 경우 2003년도에는 금융권에서의 진출, 2004년에는 소니-삼성합작투자 LCD1.8억 불등이 큼

< 한중일 3국간 FDI 투자중 제조업의 비중 >

(단위 : 100만불, %)

		대세계		중국		일본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	전산업	36,390	100.0	7,162	19.7	630	1.7		
	제조업	19,551	100.0	5,986	30.6	154	0.8		
	비중	-	53.7	-	83.6	-	24.5		
일본	전산업	414,426	100.0	18,181	4.4			4,878	1.2
	제조업	169,860	100.0	14,083	8.3			2,816	1.7
	비중	-	41.0	-	77.5			-	57.7
중국	전산업	5,777	100.0			40	0.7	504	8.7

자료 :KIEP

4. 한중일 3국의 주요산업 비교

가. 전자산업

- 2004년 한국의 전자제품 생산액은 903억달러로 미국(2,715억달러), 일본(1,978억달러), 중국(1,771억달러)에 이어 세계 4위
 - 한국 : 반도체 메모리 부문과 LCD, 휴대폰 등 첨단 제품군에서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성장세 지속
 - 일본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자산업 대국으로 HDTV, 디지털카메라, DVD레코더 등 첨단기술 제품에서 기술력과 제품 개발력으로 세계 전자산업의 리더역할
 - 중국 : '세계의 공장' 이라는 별명답게 값싼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백색가전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 최근들어 해마다 20%이상의 급증세

<전자제품 생산액>

(단위 : 억달러)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순위
미국	2,605	2,563	2,715	1
일본	1,624	1,802	1,978	2
중국	1,202	1,474	1,771	3
한국	624	736	903	4
독일	468	569	645	5

자료 : 통계청

나. 철강산업

- 동북아 3국은 세계 조강 생산량의 41%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경쟁력 보유

- 한국 : 고급 판재류를 중심으로 일반강 분야에서 높은 품질
- 일본 : 자동차와 선박용 고급 강판 등을 중심으로 고급특수강 분야에서 우위
- 중국 : '01년 이후 연평균 20%이상 증가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설투자로 철강의 수요와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조강생산량(2004년)>

(단위: 백만톤,%)

국가명	생산량	구성비	순위	국가명	생산량	구성비	순위
세계	1,056	100.0	-	미국	99	9.4	3
중국	272	25.8	1	러시아	66	6.2	4
일본	113	10.7	2	한국	48	4.5	5

자료 : 한국철강공업협회

다. 조선산업

□ 동북아 3국은 전세계 선박의 78%를 건조

- 2004년 한국의 선박건조량은 832만 CG/T로 2002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계속 세계수위를 유지
 - 2003년 대비, 일본은 17.1%증가, 한국은 14.5% 증가에 그쳐 양국간 선박건조량의 격차가 좁혀짐
 - 일본과 한국은 현재 건조량 기준으로 1~2위를 다투면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특화
-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반 화물선 등 저가 조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04년 12.5%의 시장점유

<선박건조량>

(단위 : 만 CG/T)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구성비	순위
전체	2,139	2,245	248	100.0	-
한국	682	727	832	33.6	1
일본	666	681	797	32.2	2
중국	157	257	309	12.5	3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라. 자동차산업.

□ 2004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47만대로 세계 6위, 일본은 1,051만대로 2위, 중국은 507만대로 5위기록

- 한국 : 현대, 기아를 주축으로 르노-삼성, GM-대우등이 347만대 생산,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대국
- 일본 : 토요타와 혼다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보유. 세계최초의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를 생산하는 등 최고 수준의 생산 및 기술대국
- 중국 :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5년간 연 20%의 급속한 증가세로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성장

<자동차 생산량>

(단위 : 만대)

국가	2002년	2003년	2004년	구성비	순위
전체	5,929	6,146	6,407	100.0	-
미국	1,224	1,209	1,199	18.7	1
일본	1,027	1,029	1,051	16.4	2
중국	329	444	507	7.9	5
한국	315	319	347	5.4	6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Ⅲ.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 한중일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기술, 금융, 인적교류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

○ '99년 11월 28일 마닐라에서 최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경제협력 논의 본격화

-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에 대한 정상간의 협의

[한중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현안	기대효과
한국	-대일무역적자의 구조화 -산업의 과잉설비와 중복투자 -핵심산업기술과 부품산업 취약 -선후발국사이의 넛크래커 지위	-경제협력강화로 장기적 해소방안 -국가간 구조조정, 과잉설비해소 -일본의 기술이전과 직접투자유치 -역내수평분업과 협력네트워크
일본	-대량생산 제조업의 과잉설비 -상대적으로 낮은 엔의 지위 -경제력에 뒤지는 정치적위상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위협	-한국과 중국으로 유희설비이전 -한중협력으로 엔의 국제화진전 -경협을 통해 '보통국가화'의 길 -북한개방등을 통한 위협해소
중국	-은행과 기업의 비효율과 부실 -핵심기술 열위, 저임금에 의존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기술부족 -도시,농촌등 지역발전의 불균형	-한일의 선진경영기법과 경험습득 -선진기술이전 및 인력교육 -직접투자 및 일본자본의 유입 -서부대개발등 균형발전 유도

2. 한중일 경제협력의 현황

가.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 중국의 성장에 따른 무역거래의 증가 및 투자의 유입은 한-중-일 국가간 분업구조에 영향을 미침

○ 한국,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이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 생산하는 생산 기술적 특성으로 한·중·일 3국간 역내 무역의 심화와 산업내 수직적 분업현상이 나타남

- 중국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최종재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조립하여 역외국가로 수출하는 무역, 분업구조가 형성

- 한국이 기계 및 전자제품의 주요 부품과 중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한·일간 무역 및 산업구조가 한·중간에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증대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수출증대는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자본재 수입을 유발시키는 산업구조가 고착

<한국의 대일본 부품수입 비중>

(단위 : %)

	1980	1987	1990	1998	2003
일본	39.9	46.5	39.2	33.5	34.8
세계	60.1	53.5	61.3	66.5	65.2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 중국 용도별 수출구조>

(단위 : %)

	1992	1997	2001	2003
원자재	81.5	69.6	61.2	44.6
자본재	12.6	20.1	28.0	43.6
소비재	5.8	10.3	10.8	11.8
기타	1.1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자료 : KOTIS

□ 전기전자, 기계류를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기술 및 노동력등 부존자원의 차이를 활용한 공정단계별 분업단계가 형성됨

○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부품생산 및 수출, 중국은 중·저 품질 부품의 생산 및 수입에 특화되어 있고, 한국은 일본의 고가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기계류(32.6%,1992년→41.3%, 2002년), 특히 전기기계(40.7%→52.5%), 일반기계(34.8%→41.0%)의 동아시아 역내교역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한·중·일 3국의 전기기계 업종의 비교우위 부품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부품의 수출면에서, 중국은 동 부품의 수입면에서, 한국은 양자 모두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부품생산과 제품조립에 특화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품생산과 최종조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중국이 제품조립 비교우위 비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최종조립지로서의 중요성이 확대

<전기기계 업종의 비교우위 부품 비율>

(단위:%)

	수출(부품제조)		수입(부품조립)	
	1992	2002	1992	2002
일본	61.1	51.9	9.9	17.3
한국	21.0	25.3	42.0	42.6
중국	22.8	30.0	40.7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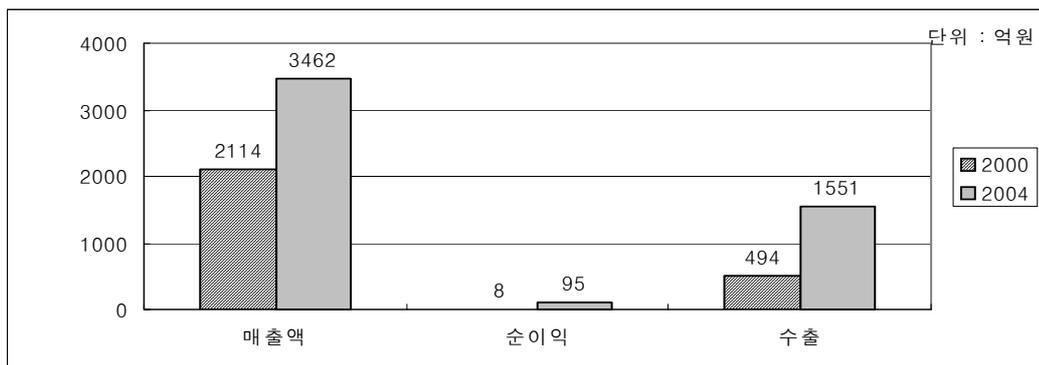
주 : HS6단위 전기기계부품에 해당하는 부품중 RCA지수가 1이상부품 비율

나. 한중일 경제협력의 성공모델

□ 한국후지제록스

- 후지제록스는 약 4년전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이전기로 결정했으나, 다카스키 노부야(高杉暢也) 회장은 일본(핵심모듈생산)-한국(주변모듈생산)-중국(조립)의 3국간 분업 체계를 제안하여, 한국공장 유지는 물론 매출 및 순이익 급증

<한국후지제록스의 경영성과 개선>



자료 : 한국후지제록스

- 다카스키회장은 한국의 장점으로 "R&D"와 "생산"의 일체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기업개요

- 모기업 : 일본 Fuji Xerox
- 투자규모 : 6,500만달러(투자비율 : 100%)
- 설립 : 1974년
- 사업내용 : 복사기 제조, 판매

□ 한국橫河(YOKOGAWA)전기

○ 일본 요코가와전기는 아시아 거점을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4개국에 집약시키고

- 일본과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 중국에서는 대량생산제품에 최적화시킴

○ 帶刀 楯夫(Obinata Tateo)는 한국의 노동자의 “일본제품에 뒤지지 않는 제품을 만들자”는 대일 경쟁의식이 고품질의 제품을 값싼 가격에 생산할수 있다고 지적

- 한국의 장점으로 “고급기술인력과 다품종 소량생산의 최적지”를 들고 있음

○ 기업개요

- 모기업 : YOKOGAWA ELECTRIC CO.,LTD
- 자본금 : 12억원(투자비율 : 100%)
- 설립 : 1978년
- 매출액 : 736억원(04년)
- 사업내용 : 산업용제어 시스템의 판매
- 대표이사 사장 : 帶刀 楯夫(Obinata Tateo)

3.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 한·일 FTA

- 1999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민간공동연구 개시
- 2003년 10월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개시기로 합의
-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개최
- 2004년 11월 이후 협상교착상태
 - 농수산물(한90%,일50%), 공산품(한95%, 일99%)의 개방폭과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인정여부, 협상방식의 이견
 -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등 대일본 취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농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증대 전망
 - 한일FTA가 체결될 경우 대일무역적자가 61억달러(KIEP)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측은 농수산물에서 5.8천만달러 적자발생예상
-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인식의 차이등 외교마찰로 협상분위기가 저해되고 있음
- 한국은 양국정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할때까지 현재의 냉각기를 유지할 전망

□ 한·중 FTA

- 200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3회의후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타당성 조사제의
-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기로 합의
- 2005년부터 2년간 중국의 국무원발전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진행중

□ 한·중·일 FTA

- 한중일 FTA는 한중일 지역협력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 3국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한국과 일본제조시설의 중국이전, NAFTA를 통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지역협력 사례등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2년 11월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측 제의에 따라 '03년~'05년 3국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진행중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 한중일 FTA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국의 견제,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불신, 일본과 한국의 산업공동화 우려 및 농산물시장개방등이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음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함

- 한중일 3국의 분업관계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 분업구조의 심화·발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간의 대등한 경쟁관계 및 분업관계에 도달할수 있도록 협력의 방향을 설정되어야 함
- 비교우위에 입각한 3국의 분업체계는 장기적으로 수직적 분업체계를 고착시킴으로써 선진기술 국가에의 종속문제라는 갈등소지를 내포함

수직적 분업체계	수평적 분업체계
일본 :첨단기술, 자본 + 한국 :고급인력,생산기술 + 중국 :시장, 노동력	⇒ 한중일 투자협력, 기술및 인력 교류 확대 및 공동개발 (신기술,미래산업,혁신생산요소)
갈등요인 : 선진기술의 종속	미래지향적 공동체

□ 한·중·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함

- 집중분야가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상호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투자와 실패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므로 국적을 초월한 관련기업간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중일 3국의 산업정책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분야의 발전 및 신기술·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의 육성에 있음

- 한국 :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등
- 일본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로봇등
- 중국 : 가전, 고부가가치 선박, 철강등

□ 사례 : 삼성전자와 소니의 전략적 제휴

- 한일 양국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소니는 2004년 7월 TFT-LCD합작회사인 S-LCD를 설립함
 - 자본금 2조 1천억원(삼성 50%+1주, 소니 50%-1주)인 동사는 제 7세대 LCD패널을 매달 6만매씩 양산, 삼성전자와 소니에 각각 절반씩 공급하게 됨.
 - 삼성전자는 TV용 LCD패널의 안정적 수요처의 확보, 소니는 LCD패널을 적기에 공급받을수 있고 세계 LCD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상호 WIN-WIN관계를 구축
 - 또한 차세대 DVD 컨소시엄중 “블루-레이”그룹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24,000건의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함
- ⇒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에서는 단일기업의 완결형 사업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기업간 상호장점을 살리는 전략적 제휴의 방안이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는 유력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

- 한·중·일 3국은 상호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협상등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
 - 국가간 FTA체결은 더 이상 지역주의의 확대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고, WTO체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국제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 한중일 경제협력은 기업간 개별적인 협력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역내 산업기술협력과 자유무역이 가능한 NAFTA나 경제통합을 이룬 EU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중일 3국이 상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후 정치적, 경제적인 전략적 협력을 추구 →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구심점으로 발전할 것임
- 한·중·일 3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상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큰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그 첫단계로 한·중·일 FTA체결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는 물론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필요
 - 한중일은 긴밀한 경제관계, 지리적 근접성과 긴밀한 역사관계, 문화적 공통요소(유교, 한자, 젓가락)가 높은 만큼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구비하고 있음.